

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 '쓱'... 언택트가 만든 미래 서울

서울지하철 1~8호선 2022년부터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시범운영 감염병 예방 중점 둔 국공립어린이집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100% 비접촉식 게이트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22년부터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가 시범 운영되고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둔 공간 디자인 솔루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대중교통, 돌봄, 의료와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혁신 표준모형을 발굴해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포스트 코로나 공공혁신 대시민 보고



박원순 서울시장(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공공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회'를 열고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4차산업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언택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

래도시 서울 조성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실시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민생 방역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뼈대로 하는 5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향후 3년간 128개 사업에 6116억원을 투

입한다.

우선시는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시작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전동차 선로의 고장 징후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트레인 안전관리를 2022년 전 노선에 도입한다. 이듬해에는 전동차별 혼잡도를 앱이나 승강장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시는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를 가져다 달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켜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접촉식 게이트'를 2022년까지 지하철 1~8호선 556개 개찰구에 설치한다. 2023년까지 3340개 모든 게이트에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신용보

증 프로세스도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대출 희망자가 금융기관을 한 차례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보증서류와 대출서류를 내면 재단과 은행이 각각 보증심사와 약정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방역에도 나선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창업(상권분석, 예비창업 컨설팅) → 성장(경영 개선 교육, 시설 보수 지원) → 재도전(업종 전환 교육, 원상 복구 비용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의 성장 면역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청년 일자리를 연간 300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창업 225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 일자리 7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17년 서울 지역총생산 404조... 전국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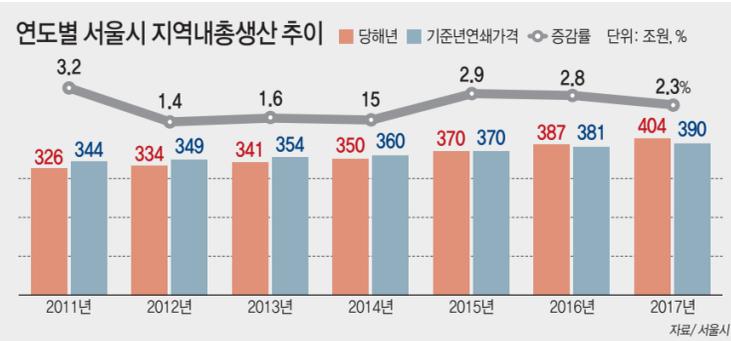
서울시민 1인당 GRDP 4133만원 강남구, 구별 GRDP 규모 가장 커 전년 대비 성장률, 강서구 1위

서울에서 2017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404조800억원으로, 전국의 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133만원으로 전국 3583만원보다 550만원 많았고, 전년 대비 201만원 증가했다.

서울의 GRDP는 도·소매업 16.4%, 사업서비스업 15.7%, 정보통신업 12.8% 등 서비스업이 91.7%를 기록했고 제조업 4.4%, 건설업 3.4%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업(4.5%), 부동산업(4.1%)이 성장했고



제조업(-4.3%), 공공행정(-2.5%)은 후퇴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65조 387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중구 51조 2130억원, 서초구 33조 7720억원, 영등포구 32조 5500억원, 종로구 31조 4160억원, 송파구 26조 8160억원, 마포구 18조 7400억원, 강서구 16조 7720억원, 금천구 16조 3850억원 순이었다.

강북구는 3조 570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강남구는 강북구의 21.4배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강서구가 44.3%로 1위였다. 반면 중구는 -4.8%로 최저였다.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기업 입주 및 이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 1인당 GRDP 규모는 중구가 4억 612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고, 종로구(1억 9623만원), 강남구(1억 2420만원), 서초구(8117만원), 영등포구(8106만 9000원), 금천구(6556만 5000원)가 뒤를 이었다. 은평구는 965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김현정 기자

김포시, 강소기업 육성·전략산업 선도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이사장 정하영)이 공식 출범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과 체계적 육성, 전략산업 선도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선7기 김포시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정책기획, 기업육성 등 2팀 5명의 최소 인력으로 출발하지만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

터가 건립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장은 지난 1일 열린 출범식에서 "혁신성장 위해 고심하고 있는 김포 기업들의 오랜 소원을 풀어드리게 돼 정말 기쁜 마음"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과 비전 제시로 강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김포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고양시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지원

고양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7월 말 운전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고양시관리공사를 통한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서울시, 준공·입주 2023년 2월 예정

서울시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세대가 공급된다고 2일 밝혔다.

착공은 올해 8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12월, 준공과 입주는 2023년 2월로 예정됐다. 공공임대가 74세대, 민간임대가 190세대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내대지에 총

연면적 1만 2835.588㎡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21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을 세대마다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상 3층에는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지상 1층은 공공보행통로로, 지상 2층은 은평구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마을활력소로 각각 조성된다. /김현정 기자

세운상가 장인 제품에 뉴트로를 더했다

서울시는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로 시제품이 제작된 카세트테이프 모양 MP3 플레이어 등 6개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이라고 2일 밝혔다.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비비티의 '카세트MP3'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터치센서 콘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로사드스튜디오의 '달마시안 선반'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제품으로 달마시안 패턴이 적용됐다.

아몬드스튜디오의 '전통잔 술라'는 전통주, 막걸리 시장에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금속 술잔이다. 40여년 경력의 시보리 장인과 아몬드스튜디오가 금형제작, 시보리가공, 프레스가공, 후가공까지 제품 제작 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협업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3일 (금)

음력 : 5월 13일

수도권 날씨

30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05:15 | 해질 19:57

연천 19/29

동두천 19/30

가평 19/29

파주 19/29

서울 21/30

양평 20/29

인천 21/28

수원 21/29

용인 21/29

평택 20/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